

= 증례보고 =

## 결막점액종 1예

박상준<sup>1</sup> · 이민정<sup>1</sup> · 성미선<sup>1</sup> · 김남주<sup>2</sup> · 정호경<sup>3</sup> · 곽상인<sup>1,4</sup>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sup>1</sup>,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과<sup>2</sup>,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안과<sup>3</sup>,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서울인공안구센터<sup>4</sup>

**목적:** 결막에서의 발생이 매우 드문 결막점액종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40대 남자가 수년 전 발생한 좌안 안쪽 결막의 종괴로 내원하였다. 종괴는 결막아래에 위치하는 12 mmx 7 mm 크기의 분홍색 종괴였으며, 만졌을 때 위치이동이 가능하였고, 통증 및 압통은 없었다. 림프종을 의심하여 절제 생검을 시행하였으며,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점액종으로 진단되었다.

**결론:** 결막에 경계가 명확하고 뚜렷한 혈관분포나 색소침착이 없는 분홍색의 종괴가 관찰될 경우 결막점액종의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대한안과학회지 2008;49(10):1676-1679〉

점액종은 원시 외배엽에서 기원하는 양성 연부조직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심장, 피부, 연조직, 뼈 등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막에서 점액종의 발생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다. Demirci et al<sup>1</sup>에 따르면 1962년에서 2005년 동안 외국에 발표된 결막의 점액종은 22예에 불과하며, 국내에서의 보고는 아직 없다. 이에 결막에 발생한 점액종을 치료한 증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증례보고

49세 남자환자가 수년 전에 발생하여 아주 서서히 성장하는 좌안 안쪽 결막의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을 포함한 다른 전신 질환의 병력은 없었다. 내원 당시 나안 시력은 양안 모두 1.0이었다. 좌안에서 각막 안쪽의 결막 아래에 주위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한 12 mm×7 mm 크기의 분홍색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만졌을 때 위치이동이 가능하였고,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압통도 없었다(Fig. 1). 다른 전안부 검사 및 안저 검사는 정상이었다. 결막 림프종으로 의

심하였으며,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위해서 좌안 안구결막의 종괴에 대해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다.

절제생검시 종괴는 결막과 공막 사이에 위치하였고 각막 윤부와 내직근의 공막 부착부 사이에 위치하였다. 종괴는 분홍색의 젤리와 같은 성상이었다.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풍부한 점액 모양 기질 내에 망상섬유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방추세포의 증식이 기질 내에서 관찰되어 점액종으로 진단되었다(Fig. 2).

절제생검 후 6개월까지 추적 관찰하였을 때 재발을 포함하여 특기할 만한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 고 찰

점액종은 신경 혹은 내피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시 중간엽에서 기원한 연부조직의 드문 양성 종양이다.<sup>2</sup> 점액종은 심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며, 골격근, 뼈, 피부의 진피조직 등에서도 발생한다.<sup>2,3</sup> 안구 내 조직에서는 안검, 각막, 결막 등에서 점액종의 발생이 보고되어있다. 결막 점액종은 구결막, 각막 윤부 순서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결막구석에서의 발생은 단 1예만이 보고되어 있다. Pe'er and Hidayat<sup>4</sup>가 양안에 발생한 결막의 점액종을 1명 보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안에서만 발생하였다.<sup>1,4-7</sup> Demirci et al<sup>1</sup>의 조사에 따르면 결막의 점액종은 18세에서 80세에서 발생하며 18세 이하의 연령에서의 발생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평균 발생 연령은 48세였고 호발하는 연령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접수일 : 2007년 11월 9일, 심사통과일 : 2008년 7월 2일〉

통신저자 : 곽 상 인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Tel: 02-2072-2879, Fax: 02-741-3187

E-mail: khwarg@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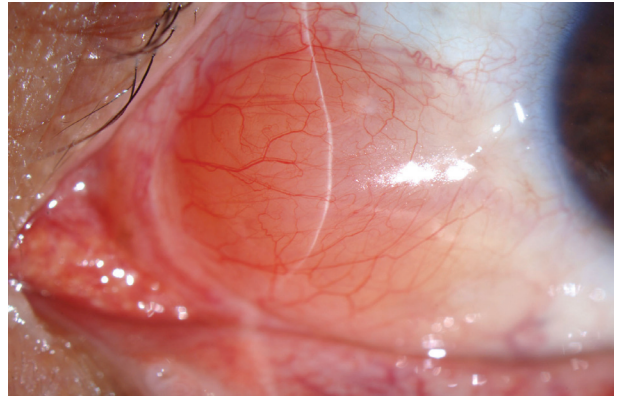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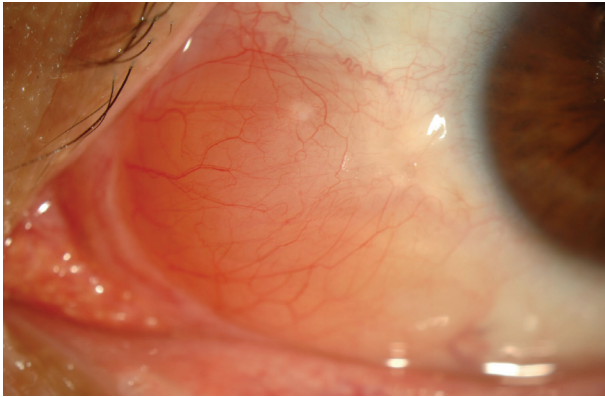


Figure 1. Well circumscribed, pinkish, movable, transparent subconjunctival mass on the nasal bulbar area of the left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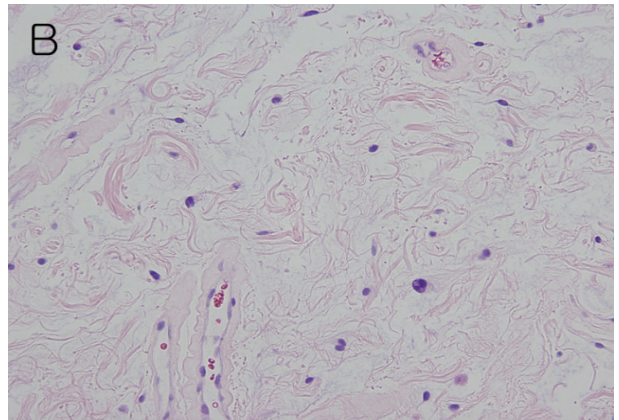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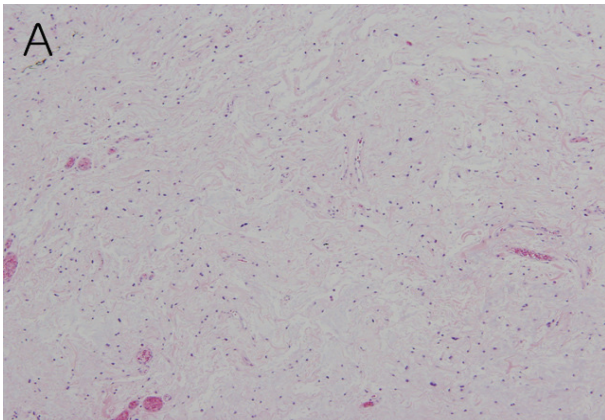


Figure 2. Spindle cell proliferation with reticular fiber in prominent hypovascular myxoid stroma (H&E, (A)  $\times 100$ , (B)  $\times 4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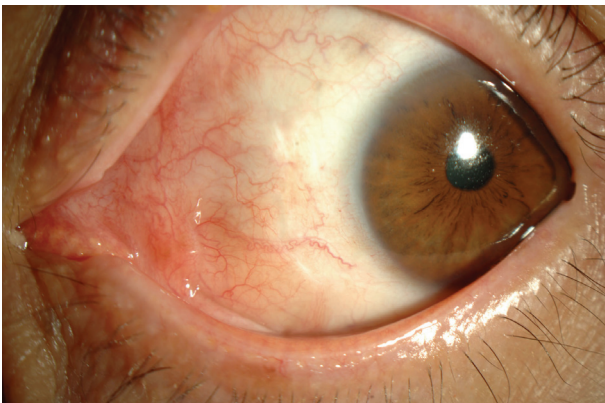


Figure 3. Anterior segment photography of the same patient 6 months after surgery. Note clear conjunctiva without recurrence or complication.

성별에 따른 발생율의 차이는 없다. 증상의 발생부터 진단 시까지의 기간은 매우 다양하여 4개월에서 24년까지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sup>1</sup>

결막에 발생한 점액종은 전형적으로 경계가 뚜렷하며, 분홍색의 투명한 낭성종괴로 나타나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종괴의 색이 노란색 또는 하얀색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직학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점액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점액성 기질과 함께 방추형 또는 별모양 세포가 날개로 흩어져 관찰된다. 점액성 기질은 대부분 히알루론산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액성 기질 사이로 섬세한 레티쿨린과 성긴 혈관조직이 존재한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점액종 세포는 세포질내 공포(vacuole)와 미세섬유가 성균 다발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공포는 늘어난 거친면세포질내세망(rough surfaced endoplasmic reticulum)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내에도 공포가 존재하는데, 이는 핵막이 접혀 안쪽으로 함입되면서 생기는 것이다.

결막에 발생한 점액종은 무멜라닌성 흑색종, 악성섬유조직구종과 같은 악성결막종양과의 감별진단이 중요하다. 결막낭장, 림프관종, 방추세포지방종 등과도 구분이 필요하다.<sup>1</sup> 점액종은 무멜라닌성 흑색종과 비교하여 내부의 혈관분포가 거의 없고 색소침착이 없다.<sup>1</sup> 무멜라닌성 흑색종은 점액종과 달리 세포의 크기와 형태, 염색이 다양하게 관찰되고 비전형적인 유사분열이 증가하여있다. 결막에 발생한 악성섬유조직구종은 7예 정도 보고되어 있을 정도로 드문 질환이지만 감별진단이 필요하다.<sup>8</sup> 악성섬유조직구종과 점액종은 Alcian blue에 염색이 되며 하이알루산분해효소로 전처리 시 사

라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악성섬유조직구증에서는 점액종과 달리 혈관분포가 많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sup>8</sup> 또한 조직학적으로 핵의 유의한 다형성을 보이고 유사분열이 증가해있는 것이 특징이다.<sup>8,9</sup>

결막에 발생한 점액종의 치료는 완전한 절제생검이다. 연부조직에서의 점액종 재발은 보고된 바가 있으나, 결막의 점액종은 재발하거나 악성 세포로 전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0</sup>

결막에 발생하는 점액종은 매우 드물지만, 결막의 경계가 명확한 뚜렷한 혈관분포나 색소침착이 없는 분홍색의 움직이는 종괴를 감별진단할 때에는 점액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Demirci H, Shields CL, Eagle RC Jr, Shields JA. Report of a conjunctival myxoma case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 Ophthalmol 2006;124:735-8.
- 2) Bulkley BH, Hutchins GM. Atrial myxomas: a fifty year review. Am Heart J 1979;97:639-43.
- 3) Ireland DC, Soule EH, Ivins JC. Myxoma of somatic soft tissues. A report of 58 patients, 3 with multiple tumors and fibrous dysplasia of bone. Mayo Clin Proc 1973;48:401-10.
- 4) Pe'er J, Hidayat AA. Myxomas of the conjunctiva. Am J Ophthalmol 1986;102:80-6.
- 5) Robinson JW, Brownstein S, Mintsoulis G. Corneal myxoma arising in a patient with repeated phototherapeutic keratectomies. Cornea 2006;25:1111-4.
- 6) Leger F, Sawan B, Mortemousque B, et al. Corneal myxoma associated with keratoconus and Down's syndrome. Cornea 2000;19:561-3.
- 7) Hansen LH, Prause JU, Ehlers N, Heegaard S. Primary corneal myxoma. Acta Ophthalmol Scand 2004;82:224-7.
- 8) Boehlke CS, Frueh BR, Flint A, Elnor VM. Malignant fibrous histiocytoma of the lateral conjunctiva and anterior orbit. Ophthal Plast Reconstr Surg 2007;23:338-40.
- 9) Weiss SW, Goldblum JR, Enzinger FM. Enzinger and Weiss's soft tissue tumors, 4th ed. St. Louis: Mosby, 2001;1622.
- 10) Burke AP, Virmani R. Cardiac myxoma. A clinicopathologic study. Am J Clin Pathol 1993;100:671-80.

=ABSTRACT=

## A Case of Conjunctival Myxoma

Sang Jun Park, M.D.<sup>1</sup>, Min Joung Lee, M.D.<sup>1</sup>, Mi Sun Sung, M.D.<sup>1</sup>, Nam Ju Kim, M.D.<sup>2</sup>,  
Ho-Kyung Choung, M.D.<sup>3</sup>, Sang In Khwarg, M.D.<sup>1,4</sup>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sup>1</sup>, Seoul,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sup>2</sup>, Gyeonggi-do, Korea*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Boramae Hospital<sup>3</sup>, Seoul, Korea*

*Seoul Artificial Eye Center, Clinical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up>4</sup>, Seoul, Korea*

**Purpose:** To report a rare case of conjunctival myxoma.

**Case summary:** A 40-year-old man presented with a nasal bulbar conjunctival mass in his left eye. The mass was a 12 mm×7 mm pinkish movable mass in the subconjunctival space. There was no pain and no tenderness. We diagnosed the case as lymphoma, and we performed excisional biopsy of the mass. Histopathologic examination revealed the tumor to be a myxoma.

**Conclusions:** When a patient presents with a pinkish, less vessel-appearing, non-pigmented and movable mass of the conjunctiva, conjunctival myxoma should be considered as a possible diagnosis.

J Korean Ophthalmol Soc 2008;49(10):1676-1679

**Key Words:** Conjunctival myxoma, Myxoma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ang In Khwarg, M.D.**

Department of Ophthalm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28 Yongon-dong, Chongno-gu, Seoul 110-744, Korea

Tel: 82-2-2072-2879, Fax: 82-2-741-3187, E-mail: khwarg@snu.ac.kr